19) 『文化遺蹟分布地圖』順天大學校博物館 2000년 p.208

광양지역에서 현재(2002. 12. 31)조사된 삼국시대(백제)시대의 유물 · 유적으로는 광양 골약동 유물산포지 등 12개소에 산포되어 있으며 개소별로 유물 · 유적을 개략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19]

〈표2-9〉 광양의 삼국시대(백제)유물 · 유적 (2002. 12. 31현재)

| 연번 | 유적명 | 소재지 | 유물 · 유적 | 비고 |
|---|---|---|---|---|
| 1 | 光陽骨若洞通仕遺物散布地 | 광양시 골약동 통사마을 244 | 회청색 경질토기편, 청자편, 백자편 | |
| 2 | 光陽骨若洞坪村遺物散布地 I | 광양시 골약동 평촌 | 토기편<br>(삼국시대 주거지나 분묘유적으로 추정) | |
| 3 | 光陽骨若洞坪村遺物散布地 II | 광양시 골약동 평촌 | 경질토기편 | |
| 4 | 光陽骨若洞坪村遺物散布地 III | 광양시 골약동 평촌 | 경질토기편 | |
| 5 | 光陽骨若洞下浦窯址 | 광양시 골약동 하포 | 회청색 경질토기<br>도기 | 삼국~고려시대 |
| 6 | 光陽太仁洞墻內遺物散布地 | 광양시 태인동 장내 | 패각<br>연질 · 경질토기편 | |
| 7 | 馬老山城 |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78외 | 백제~통일신라시대 기와<br>「馬老官」「軍易官」명이 새긴 기와<br>철제마, 토제마(제사유구)등 | 백제시대 산성 |
| 8 | 光陽龍江里臥龍古墳群 |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와룡 | 고분<br>석실분 · 석관분(밀집지역) | |
| 9 | 光陽石社里玉峴窯址 | 광양시 봉강면 석사리 옥현 | 요지<br>토기편(회청색 경질토기편, 회질 연질토기편) | |
| 10 | 光陽山南里山本遺物散布地 II | 광양시 옥룡면 산남리 산본 | 경질토기편 | |
| 11 | 佛岩山城 |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산38외 | 기와류, 토기류, 석환(石丸) | 백제시대 산성 |
| 12 | 峰岩山城 |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 아동 | 석재, 석 | 백제시대 산성 |

## 제4절 통일신라시대

### 1. 시대개관[20]

20) 申瀅植「통일신라(개요)」한국사⑨ 국사편찬위원회, 이 글(시대개관)은 위 책자에 크게 의존하여 집필되었음을 밝혀둔다.

통일신라는 한국 고대사에 있어서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번영을 이룩한 시기이다. 비록 국토와 인구는 크게 감소되었으나, 영토적 야욕을 지닌 당의 세력을 한반도 밖으로 축출시켜 민족의 자결권을 확보하고, 백제 · 고구려 문화의 폭 넓은 수용과 성당문화(盛唐文化)까지 포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킨 것은 통일신라의 역사적 위상을 높여 줄 수 있다.

특히 이 시기는 새로운 통일국가 수립과 외세 축출이라는 민족적 과제 수

행에 따라 형성된 국민의 공감대 위에 무열왕대(武烈王代)의 「전제왕권확립」은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다. 따라서 정비된 중앙 · 지방 · 군사 · 토지제도의 재편성 · 귀족의 경제기반 확대와 산업의 발달 등이 수반되어 한국전통사회의 모델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에 적극적인 대당외교(對唐外交 : 조공, 숙위)와 해상활동을 통해 신라의 국제적 지위를 높였으며, 통일신라문화의 융성으로 불교철학과 유교정치(국학, 독서출신과, 국사편찬)의 정착 및 각종불교미술과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어져 미증유의 번성기를 구가 하였다. 따라서 영토와 인구의 축소라는 외형적 의미로 신라통일을 평가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신라의 통일은 영토 · 인구상 불완전 하였으나, 최초의 민족통일로서 단일정부하에 민족 국가가 출범한 것이다. 더구나 문화적으로는 백제 · 고구려의 문화를 파괴시키지 않고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새로운 민족문화를 매듭지었으므로 그 의의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사진2-25 : 신라의 9주 5소경

## 2. 통일신라시대의 광양

삼국을 통일하고 8년에 걸친 대당전쟁으로 당을 몰아낸 신라는 대체로 대동강과 원산만을 연결하는 선 이남의 땅을 차지하여 사실상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되었다.

통일 후 신라의 영역은 백제의 영역전부와 고구려 영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넓은 판도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확대지역의 지배에 있어서 먼저 해결해야 할 두가지 현안이 있었다. 그 하나는 갑자기 확대된 수취기반(收取基盤)의 분배문제를 놓고 전제적 왕실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신라의 지배세력을 재편성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확대된 지역에 거주하는 고구려 · 백제계 주민의 복속을 확실히 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일이었다. 그러한 조치로서 나타난 것이 구주(九州), 오소경제도(五小京制度)의 확립이요 구서당(九誓幢) · 십정(十停)등 군사제도의 정비였다.[21]

소경(小京)은 삼국이 통일되기 이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지증왕

21) 金哲埈, "統一新羅 支配體制의 再整備"「한국사」3. 고 대 ( 국 사 편 찬 위 원 회,1981) p.50~51

15년(514)에 아호소경(阿戶小京 : 안강)이 설치되었으며, 진흥왕 18년(557년) 국원소경(國原小京 : 충주)이, 선덕여왕 8년(639)에는 비소경(比小京 : 강등)이 설치되었다. 이같이 소경이 통일전에 이미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체계있게 정비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통일뒤인 문무왕 18년(678)에 북원소경(北原小京 : 원주), 동 20년(680)에 금관소경(金官小京 : 김해)이 설치되고, 신문왕 5년(685)에는 서원소경(西原小京 : 청주)과 남원소경(南原小京 : 남원)이 설치되었으며, 앞서 설치된 국원소경(國原小京)이 중원소경(中原小京 : 충주)로 변경됨으로써 5소경이 완성되기에 이르렀다.[22] 이러한 소경에는 왕경(王京)의 귀족이 이주하여 5소경의 지방세력을 견제하였는데, 중원 소경에는 대가야의 귀족들이, 남원소경에는 고구려의 귀족들이 옮겨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23]

5소경 제도와 함께 신문왕 7년(687)에는 구주(九州)가 설치되었다. 본래의 신라지역과 구 가야 지역에 사벌주(沙伐州) · 삽량주(歃良州) · 청주(菁州), 구 백제지역에 웅천주(熊川州), 완산주(完山州), 무진주(武珍州), 구 고구려 지역에 한산주(漢山州), 수약주(首若州), 하서주(河西州)를 두었다.

이러한 주는 삼국시대의 주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삼국시대의 주는 구역으로서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 주치(州治)의 소재지는 군사근거지로서의 기능이 보다 중요시 되었고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주치(州治)나 주(州)의 이동과 치폐(治廢)를 자주하여 왔던것인데, 신라 통일후에 와서는 고정된 지방행정구역의 성격이 성립된 것이다.[24]

9주와 그에 속했던 군현수 그리고 각각의 주치(州治)를 살펴보면 다음표와 같다.[25] 주의 장관(長官)은 원래 군사적인 성격이 강했던 관계로 군주(軍主)라고 불렸는데, 이것은 신라의 독자적인 칭호였던 것이다.

22) 李基白, 李基東, 前揭書. p.333

23) 林炳泰, "新羅小京考"「歷史學報」35 · 36輯. 1967. pp.84~94

24) 金哲埈, 前揭書, p.54

25) 이 表는 李基白 · 李基東 著「韓國史講座」Ⅰ, 古代篇. pp.335에서 인용한 것임

〈표2-10〉 통일신라시대 9주와 군 · 현수

| 주명 | | 주치 (현지명) | 군수 | | 현수 | |
|---|---|---|---|---|---|---|
| 원명 | 경덕왕시 개칭명 | | 「삼국사기」 지리지 | 「삼국사기」 경덕왕 16년조 | 「삼국사기」 지리지 | 「삼국사기」 경덕왕 16년조 |
| 계 | | | 120 | 117 | 305 | 293 |
| 沙伐州 | 尙州 | 尙州 | 10 | 10 | 31 | 30 |
| 歃良州 | 良州 | 梁山 | 12 | 12 | 40 | 34 |
| 菁州 | 康州 | 晋州 | 11 | 11 | 30 | 27 |

| 주명 | | 주치 (현지명) | 군수 | | 현수 | |
|---|---|---|---|---|---|---|
| 원명 | 경덕왕시 개칭명 | | 「삼국사기」 지리지 | 「삼국사기」 경덕왕 16년조 | 「삼국사기」 지리지 | 「삼국사기」 경덕왕 16년조 |
| 漢山州 | 漢州 | 廣州 | 28 | 27 | 49 | 46 |
| 首若州 | 朔州 | 春川 | 12 | 11 | 26 | 27 |
| 河西州 | 溟州 | 江陵 | 9 | 9 | 26 | 25 |
| 熊川州 | 熊川 | 公州 | 13 | 13 | 29 | 29 |
| 完山州 | 全州 | 金州 | 10 | 10 | 31 | 31 |
| 武珍州 | 武州 | 光州 | 15 | 14 | 43 | 44 |

그러나 태종 무열왕대에는 이를 중국식으로 고쳐서 도독(都督)이라고 불렀고, 신문왕대에는 또 총관(摠管)이라 칭하게 되었다. 이 총관은 규정상으로는 급창(級湌)이상 이창(伊湌)까지의 관등을 가진 자가 임명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육두품(六頭品)출신도 이에 임명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육두품 출신으로 총관에 임명된 사람은 기록에 나타나지가 않으며, 따라서 진골(眞骨)이 총관을 독점하였다고 생각된다.

주(州)밑에는 전국에 117~120개의 군(郡)과 293~305개의 현(縣)이 있었다. 군(郡)에는 그 장관으로 군태수(郡太守)가 임명되었으며, 현(縣)에는 그 격에 따라서 소수(小守)가 임명 되기도 하고 혹은 현령(縣令)이 임명되기도 하였다. [26]

광양지역은 무진주(武珍州)의 헐평군(歇平郡)에 속하여 경덕왕 16년(757)까지 마로현(馬老縣)으로 불리었다. 그러다가 경덕왕 16년에 이르러 모든 주군·현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고쳤다. 이와 같은 경덕왕의 한화정책(漢化政策)은 당대(當代)에 있었던 왕권 강화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것이다.

경덕왕의 귀족세력 억제를 위한 노력은 동왕 7년(748)에 백관(白官)에 대한 감찰임무를 맡은 정찰(偵察)의 설치로 시작되어 동왕 18년에는 대폭적인 관제개혁(官制改革)을 단행하여 왕은 귀족회의 정치체제를 떠나서 그 전제적(專制的)인 지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였다.[27]

한화정책(韓化政策)에 의하여 마로현(馬老縣)은 희양현(晞陽縣)으로 개명되었고, 무진주(武珍州)는 무주(武州)로, 헐평군(歇平郡)은 승평군(昇平郡)으로 개명되었다. 그리하여 광양지역은 경덕왕 16년(757)이후부터 고려초기까지 행정구역상 무주(武州) 승평군(昇平郡) 희양현(晞陽縣)으로 일컬어 졌다.

26) 李基白·李基東, 前揭書. p.336

27) 崔柄憲, "新羅下代社會의 動搖"「한국사」3, 고대(국사편찬위원회, 1981). pp.427~428

이와 같은 한화정책에 의한 개명은 원래부터 불려왔던 지명을 중국 한자의 음(音)과 훈(訓)을 빌어 표기한 고유지명(固有地名)과는 어느정도 거리가 있는 것으로서 관직명칭의 개명과 함께 실행되었던 것이다. 경덕왕대의 한화정책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적어도 신라가 3국을 통일한 이후 경덕왕에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소위 중대(中代)에 있어서 일관된 정책이었다. 이것은 곧 과거의 진골귀족의 연합을 부정하고 왕권의 전제화를 촉진시키는 경향의 표현이었다.[28]

28) 李基白, "新羅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新羅政治社會 研究 員」(一湖閣, 1974)pp.246~247

### 3. 광양의 통일신라시대 유물 · 유적

광양지역에서 현재(2002. 12. 31)조사된 통일신라시대의 유물 · 유적으로는 전 망해사지 등 6개소에 산포되어 있으며 개소별로 유물 · 유적을 개략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29]

29) 「文化遺蹟分布地圖」順天大學校博物館, 2000年

▲ 사진2-26 : 전 망해사지

사진2-27 :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

〈표2-11〉 광양의 통일신라시대 유물 · 유적

| 연번 | 유적명 | 소재지 | 유물 · 유적 | 비고 |
|---|---|---|---|---|
| 1 | 傳 望海寺址 | 광양시 골약동 금곡 | 토기편과 와편 (통일신라~고려) | |
| 2 | 中興寺 |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산23 | 구전에 신라 48대 경문왕때 도선국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함<br>삼층석탑(9세기) | |
| 3 | 中興山城三層石塔 |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산23 | 신라시대 말기의 삼층석탑(보물 제112호) | |
| 4 | 中興山城 雙獅子石燈 | 국립광주박물관 | 석등, 전체높이 2.5m(국보 제103호) | |
| 5 | 玉龍寺址一圓 |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산304-1 | 발굴조사 결과 도선국사 · 통진대사 쌍비 · 쌍탑지 확인(사적 제407호 지정) | |
| 6 | 雲岩寺址 |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 통일신라 말(864년)도선국사가 창건<br>옥룡면 추산리 추동마을 북쪽에 위치하였는데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음 | |